



**2015년 7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7월 발간 연구원 회지 제호 공모 마감 및 심사 안내**

: 7월에 발간 예정인 연구원 회지의 제호 공모에 많은 회원들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엄격하고 냉철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당선된 제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호 응모에 참여해 주신 분과 관심 가져주신 회원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하며,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업 -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 강의**

- 시간 : 7월 8일(수) 14시 ~ 16시
- 장소 :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
- 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 독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독도사업의 일환으로 전주권 청소년 대상으로 독도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임숙정 연구실장이 전주의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고유레 및 도청사 시민개방

: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고유레 및 도청사 시민개방 행사가 7월 9일 10시부터 구 전라북도청사 정문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전라감영 복원의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행사 이후 홍성덕 부원장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동행하여 구 전라북도청사 내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 2015년 회원의 날 안내

: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주대학교에 새 동지를 틈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새로이 옮긴 연구원에서 강연과 체험행사 등을 중심으로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15년 0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행사(전주대학교 일원), 숙박(초남이 성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7월 13일(월) : 주간회의(11시)

## ■ 역사속의 오늘

### ○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다 - 1950. 07. 14

: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남한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 미국이 변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묵인했고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은 1.4 후퇴 때 국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국 인민군에게 뚫리게 되는 우리 군 최악의 수치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다.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다. 1951년 현리 전투에서 중국군을 맞이한 것은 한국군 3군단이었다. 그런데 중국군의 선봉 1개 중대가 야간 12시간 동안 강원도의 험한 산길 30킬로미터를 주파하여 후방의 오마치 고개를 점령하였다. 그 순간 퇴로가 막힌 것으로 판단한 국군 3군단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미 8군 사령관 밴플리트가 당시 한국군 3군단장이었던 유재흥에게 "당신의 군단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유재흥은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대답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후 밴플리트는 한국군 1군단을 제외한 모든 군단을 해체시켜 미군에 배속시키고 1군단 또한 육군본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제할 것을 결정한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 영역마저도 스스로의 오류와 실수로 인해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65년 뒤인 오늘까지 대한민국 군 작전권은 미국의 소유다. 겨우 1995년에 평시작전권만을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상시에만 대통령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는 군대이다. 전시작전권 반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시작전권이 있기에 우리와 미국이 공동으로 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반환은 주한미군철수로 가기 위한 적화세력의 준동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12일자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천안함 사건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한국군의 현실을 볼 때 연기가 필연적이라고 밝히며 2020년 이후로 연기하였고,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해군과 공군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오늘날 한국은 국방비가 세계 10위 수준에 이르며, 북한의 34배를 넘어서는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열세로 인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유예되어야한다는 주장의 속살에 의혹을 갖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오원춘 - 1979. 7. 17

: 오원춘하면 몇 해 전 여성을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조선족을 떠올릴 이들이 많을 것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오원춘 말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오원춘이 또 있다.

1978년 영양군은 유희농지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군내 5개 면에 가을감자 재배를 적극 권장하며 감자종자 농가에 보급했으나 종자가 불량하여 재배농가의 80% 이상이 감자의 싹이 나지 않았다. '청기면감자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군수와 농협 조합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1979년 1월 23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였고, 농민들은 안동교구 사제단의 지원을 받아 피해보상투쟁을 전개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었다. 하지만, 1979년 5월 5일부터 22일까지 피해보상활동에 앞장섰던 안동 카톨릭농민회 청기분회장 오원춘이 괴한들에게 납치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27일에 카톨릭 안동교구 사제회의에 정희욱 신부가 오원춘 납치사건을 보고하고, 정희욱·김기·류강하·정호경(안동 카톨릭농민회 지도신부)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원회는 오원춘 면담과 자체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한국민주화운동사 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돌베개)

1979년 7월 17일 오원춘 사건은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제작된 '짓밟히는 농민운동'이라는 문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폭로되었다. 전국이 발칵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매우 엉뚱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현장검증을 이유로 오원춘을 유인해 빼돌리더니 폭행과 고문으로 증언을 번복시킨 것이다. 그 뒤 경북도경은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이사이자, 경북 영양군 청기면 분회장인 오원춘은 그 해 5월 5일부터 21일까지 포항 울릉도 등지를 개인적으로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기관원에게 납치돼 폭행 감금 또는 감시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라고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오원춘은 물론 안동교구의 신부까지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이어 열린 공판에서 오원춘은 변호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검사만을 바라보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소와 재판은 몇 달 뒤 허무하게 끝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복의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을 '빨갱이'로 둔갑시켜가며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독재자였을 뿐" 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2007.01.08 기사 참고)

그는 2005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